

‘양궁 3관왕’ 안산, 도쿄올림픽 못갈 뻔 했다



안산이 30일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엘레나 오시포바를 상대로 숏 오프 끝에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오르며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고 있다.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안산은 개인전 결승에서도 승리해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이 됐다.

/연합뉴스

안산(20·광주여대)이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사상 첫 3관왕, 도쿄올림픽 첫 3관왕, 세계양궁 남녀 혼성전 첫 금메달 등이다.

안산은 지난 30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엘레나 오시포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숏오프 끝에 6-5(28-28, 30-29, 27-28, 27-29, 29-27 <10-8>)로 꺾고 우승했다.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은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전 종목을 통틀어 금메달 3개를 따낸 선수는 안산이 처음이다.

안산은 또 한국 선수 최초로 하계올림픽 단일 대회 3관왕에도 올랐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단일 대회 2관왕이 한국 선수 최다관왕 기록이었고, 동계 올림픽은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쇼트트랙 안현수와 진선유가 3관왕에 오른 사례가 있다.

안산은 올림픽 양궁 역사도 새롭게 썼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는 남녀 개인전, 단체전

지난해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서 4위 … 올림픽 출전 불가능 코로나19로 연기 다시 선발 … 마지막 3발로 3위에 ‘턱걸이’ 올림픽 무대에 서자 날개 활짝 … 온갖 악재 뚫고 3개 금메달

등 금메달 4개였던 양궁에 이번 대회부터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면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안산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이번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운명이었다. 광주여대 1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최종 평가전에서 4위를 차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했다. 3위까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어서다.

도쿄의 꿈을 접고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던 그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양궁협

회가 지난 4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국가대표를 뽑기로 한 것이다.

안산은 세계 무대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턱걸이했다. 당시 강채영이 1위, 장민희가 2위였고 안산이 3위였다. 안산의 스승인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은 “최종 선발전 마지막 날 3발로 최종 선발전 관문을 뚫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안산도 “돌이켜보면 올림픽보다 대표 선발전이 더 떨렸다. 마지막에 간당간당해서 올림픽에 못 올 뻔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무대에서 안산은 날개

를 활짝 폈다. 안산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예선 랭킹라운드(순위결정전)에서 680점을 기록해 25년 묵은 올림픽 기록을 갈아치우며 1위를 차지, 3관왕 도전 기회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첫 올림픽의 중압감도, ‘온라인 학대’도 안산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안산은 지난 24일 혼성 단체전과 25일 여자 단체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오른 뒤 예상치 못한 비난 여론에 맞닥뜨렸다.

과거 그가 SNS에 ‘옹양옹’, ‘오조오악’ 등 일부에서 남성 혐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정작 안산은 ‘산’ 처럼 목직했다. 안산 역시 이 논란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전 64강전부터 결승까지 치고 올라갔다.

타고난 ‘강철 심장’과 멘탈도 돋보였다.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이어 1발로 승부가 결정나는 숏오프를 치렀지만 모두 10점 만점을 쏘았다.

다른 선수들의 심박수는 분당 130~150회를 오갔다. 안산은 100회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지막 숏오프 때 안산의 심박수는 분당 118회, 오시포바는 167회를 기록했다.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안산은 지난 30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기쁘다”고 밝혔다.

속으로 많이 긴장했다는 안산은 “속으로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졸지 말고 대중 썩”라고 되뇌었다고 한다.

지도자들은 안산이 워낙 차분하고 정신력이 강해 ‘원조 신궁’ 김수녕처럼 오래 올림픽 무대를 누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라켓소녀의 눈물…안세영 “계속 도전할게요”

8강서 ‘천적’ 천위페이에 패배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더 열심히”

배드민턴 천재 소녀로 주목받는 안세영(19·삼성생명)이 ‘천적’ 천위페이(23·중국)에게 4강 진출권을 내주고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은 지난 30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8강전에서 천위페이에게 0-2(18-21 19-21)로 졌다.

안세영은 2게임 막판 발목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고도 끝까지 천위페이를 추격했지만 끝내 역전하지 못했다.

안세영은 허탈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의자에 걸터앉아 코트를 떠나지 못했다.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도 안세영은 그렇그렁 눈물이 고인 채 흘쩍이면서 인터뷰를 했다.

안세영은 “후회 없이 준비했다. 선생님(장영수 대표팀 코치)은 제가 새벽이나 야간에 같이 운동 나가자고 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같이 해주셨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발목 상태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크게 다쳤어도 훈련한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뛰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세영은 “많은 분이 제 공격력이 약하다고 해서 더 열심히 공격을 준비했다. 쉬는 날 없이 계속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공으로 공격을 연습했다”며 “확실히 경기에서는 긴장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안 나온 게 아주 아쉽다”고 속상해했다.

울컥하다가 말을 못 잊던 안세영은 “선생님들께



안세영이 지난 30일 일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중국 천위페이와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 경기에서 패배한 뒤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

/연합뉴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함이 너무 크다”며 대표팀 코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훈련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가 봐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안세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서 1회전 만에 탈락한 이후 ‘하루도 안 쉬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안세영은 “후회 없이 준비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준비해서도 안 났으니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수비가 비수’… 8강서 주저앉은 축구

김학범호, 멕시코에 3-6 대패

한국 축구 대표팀이 허술한 수비로 다시 올림픽 8강에서 주저앉았다.

김학범 감독이 지휘한 한국대표팀은 지난 31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3-6으로 졌다.

손흥민(토트넘)이 와일드카드로 나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온두라스와의 8강에서 0-1패를 기록했던 한국은 2개 대회 연속 8강을 넘지 못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위업 재현에 나섰던 한국에게는 ‘운수 좋은’ 조별리그였다.

뉴질랜드의 높이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0-1패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후 루마니아와 온두라스를 상대로 각각 4-0, 6-0 대승을 거두며 조 1위를 차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의 자책골과 두 경기 연속 퇴장이라는 호재 속에 맞은 조 1위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올랐던 8강 무대에서는 개인기를 앞세운 멕시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3-6 참패를 당했다.

전반 12분 만에 엔리 마르틴에게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전반 20분 이동경(울산)의 골로 이내 균형을 맞췄다. 이동경은 오른쪽으로 공을 잡아 방향을 튼 뒤 시원한 원발로 멕시코의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30분 루이스 로모의 논스톱 슈팅에 다시 리드를 내줬고, 전반 39분에는 페널티킥으로 세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멕시코의 기세에 밀린 전반전이었지만 한국은 후반 6분에 나온 이동경의 추격골로 4강 불꽃을

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수비가 문제였다.

이동경의 두 번째 골이 나온 지 3분 만에 마르틴이 다시 한번 문전으로 달려들어 수비수들을 가볍게 따돌리고 멀티골을 기록했다.

후반 18분에는 세바스티안 코르도바가, 후반 39분은 에두아르도 아그레가 한국의 골대를 뚫었다. 이렇다 할 체지 없이 기록한 득점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황의조(보르도)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결국 조별리그 3경기에서 8골을 터트렸던 멕시코와 ‘진짜 대결’에 나선 한국은 수비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8강에서 도전을 멈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 일정

2일(월)

사격 08:30 남자 25m 속사권총 송준호, 한대운

배구 09:00 여자 조별리그 A조 한국-세르비아

핸드볼 09:00 여자 조별리그 A조 한국-영국

탁구 10:00 남녀 단체전 16강

레슬링 11:00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김민석

사격 11:30 남자 50m 소총3자세 김상도

역도 11:50 여자 87kg급, 87kg 이상급 강윤희, 이선미

야구 12:00 본선 토너먼트

오트 12:10 남자 470급 9-10 레이스 조성민, 박건우

배드민턴 13:00 여자 복식 동메달 결정전 이소희-신승찬, 김소영-공희용

다이빙 15:00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 우하람, 김영남

체조 17:00 남녀 종목별 결승 신재환(남자 도마)

아구 19:00 본선 토너먼트

TOYKO 2020

지문/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제공, 대한체육회

연합뉴스